

는 行이 강조되곤 하였는데 그러나 탁월한 수행자가 배출하는 것과 一致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朴先生님은 「피안의 동경」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는 없다 했으나 피안의 동경은 佛敎가 우리에게 준 것이다 생각합니다. 피안의 동경이 있다면 유교아닌 불교가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저승이란 말이 나온 동기는 한국의 곤란한 형편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과지막으로 말씀드릴것은 사실 한국인은 결코 어떤 지향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상이 들어오기 前에, 사람다운 깊고 큰 희망을 가진 것이었는데 그것이 아직 體系化된 理論에 의해서 가르쳐지지 않았을 때에 外來思想이 들어와 공백을 채워준 것입니다. 特히 佛敎는 超思想的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사악한 것이 아닌 옳은 것으로 가는 超思想的인 宗教的 使命을 한 것입니다. 西洋的인 것보다 더 참된 意味의 行의 實踐은 佛敎가 가진 超思想的인 面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思想을 어느 地域面으로 구획하거나, 시대로 구획하여 이야기함은 모순인 것입니다. 實은 살아있는 것이고 기성품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데에서 우리의 思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우리의 모든 條件이 이를 修行할 만큼 可能한 것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그것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必要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韓國思想에 끼친 天主教의 影響

柳 洪 烈

※ 本 發表는 錄音이 압되어 要約으로써 代한다.

韓國思想이라 함은 말할것도 없이 韓國風土 또는 社會에서 形成된 韓民族의 人生觀 宇宙觀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이것은 恒時 不變의 것이 아니고 爲 政者의 政策如何에 따라 時代的으로 盛衰하기도 하고 보다 새로운 外來思想의 攝取에 따라 變化發展하기도 하였었다. 이러한 見地에서 韓國思想이 天主教(西學)의 傳來로 말미암아 變化하게 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天主教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모든 人類를 造物主인 天主의 아들이라고 보아 서로 兄弟와 같이 사랑하며 사람의 靈魂이 不滅함을 믿어 서로의 人權을 侵害하지 말것을 根本敎旨로 삼고 있다. 天主教는 이러한 敎旨를 武器로 삼아 온갖 僞善者 暴君 獨裁家 侵略者와의 神聖戰에서 最後의 勝利를 거두면서 地上에 「사랑과 平和」가 實現되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 것이다.

韓民族이 天主教와 接觸하게 된것은 壬辰倭亂때 부터의 일이었다. 이 때 日本으로 잡혀간 數萬名의 우리 男女 同胞들은 奴隸로 되어 南洋 各地로 팔려가고 있었다. 때마침 日本에서 傳敎하고 있던 西洋人神父主教들은 長崎에서 會

議를 열고 人身의 賣買를 嚴禁하는 指示를 내리는 한편 奴隸로 팔려가던 우리 同胞 2,000餘名을 救濟하여 洗禮를 주게 되었다. 그때의 事情을 프리스(Louis Froès) 神父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天主教를 받아들인데 모든 準備가 되어 있는 사람들임을 이미 體驗한바이다. 그들은 자못 愛嬌가 많고 반겨 洗禮를 받고 自身이 敎人이 됨을 感激하고 있다.』

이와 같이 日本으로 잡혀갔던 우리 同胞들이 쉽게 즐겨 天主教로 改宗하게 되었다는 것은 勿論 그들이 捕虜와 같은 身勢로 되어 奴隸로 팔려가게 됨으로부터 救濟되었다는 感激에 말미암은 것이기도 하였을 것이나 한편으로는 우리 民族이 原始時代부터 굳은 祭天思想과 崇祖思想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오늘에 있어서도 西洋人 宣敎師들은 韓國人이 天主教를 쉽게 받아들일 準備가 되어 있는 民族이라고 異口同聲으로 말하고 있다.

이리하여 天主教는 虛禮的인 朱子學만을 崇尚하면서 佛敎를 비롯한 모든 學術思想을 排擊하던 朝鮮王朝에 있어서 먼저 隱退한 南人學者들 사이에 西學이라는 이름으로 研究되어오다가 드디어 自發的으로 天主敎會를 創設하게 되었다. 이들 兩班出身의 南人學者들은 中人階級의 譯官이던 金範禹의 집에 모여 各階級의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 天主敎會를 創設함과 아울러 서로 敎友라고 부름으로써 當時의 嚴格한 階級制度를 打破하는 일의 先驅가 되었다. 그 뿐더러 그들은 敎理冊들을 모두 純國文으로 出版하여 누구나 이를 읽을 수 있게 함으로써 올바른 人生觀 宇宙觀을 갖게 하였다.

天主教는 西洋의 地理 天文 曆學等과 더불어 傳來되었으므로 이를 研究하던 南人學者들 사이에서는 救世救民하는 實事求是의 實學이 發達하게 되었다. 그러한 代表的인 學者로서 牧民心書 麻科會通等を 著述한 茶山 丁若鏞을 들 수 있는데 그 以後에 있어서도 天主教人들은 特히 醫學研究에 專心하여 仁術로서 迫害時代를 살아왔었다. 이러한 迫害時代에 있어서도 길에 버린 孤兒를 救濟하고 藥局을 主要邑에 開設하고 있었다.

天主教人들은 일찍부터 世界가 넓은 것을 알고 西洋人 敎職者들을 迎入하는 한편 우리 少年들을 外國留學生으로 보내고 西洋의 나라들과 國交를 맺을 것을 提唱함으로써 當時의 固陋한 鎖國主義政策을 打破하려 하였다.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韓國이 海外에 紹介되고 韓國에 關한 西洋人의 著書가 續出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天主教는 韓國을 近代化 하는 일에 先驅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反動으로서 東學運動이 發生하게 되었다. 東學運動은 西學을 排斥하려는 뜻에서 일어난 것이었으나 그 創說者이던 崔濟愚가 濟世主라 自稱하면서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등의 見文을 지은 點等으로 미루어보아 天主教를 模倣한 것이었다. 우리 思想史에서는 新羅時代에 나타나던 佛歸土說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外來思想을攝取한 後에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傾向을 많이 볼 수 있는데 東學運動도 그 하나의 例라 볼 수 있다.

韓國思想과 西洋近代思想

洪 以 燮

※ 本發表는 錄音이 없기에 要約으로서 代한다.

序——韓國思想과 外來思想과의 接觸에 있어 보다 오늘에 接近된 時期에 있어 또하나의 課題는 韓國社會가 資本主義列強과 接觸할 때 卽 近代化의 過程(實質的으로는 精民地化過程이었지만……)에 있어 精神的 狀況이 어떠한 것이며, 外來思想의 受容에 있어 어떠한었느냐? 이것은 곧 西洋近代思想과의 交涉이었다. 대체 時間的으로는 1870年代에 있어 近代化한 日本과의 接觸에서 부터 따져 볼 것이다.

1. 金玉均의 開化運動——金玉均이 近代化 途程의 日本을 通하여 西歐的인 文物을 받아들일라는 運動은 1876年 開港에 다른 日本文物에 接觸하면서 부터 이었다. 一部の 人士는 앞서 淸을 通해 世界大勢를 알고 있던 것이지만 보고 알고 생각한 것을 朝鮮의 開化(=近代化)를 위하여 써 몰라고 생각한 바를 實踐할라고 努力한 사람은 아무래도 金玉均일 것이다. 1881年(辛巳), 遊覽團의 海外視察, 1883年에서 1年間 日本을 거쳐 美國·유럽을 視察한 美國에의 報聘使 一行은 近代世界에 눈을 뵈는 것이다. 그러나 淸日間의 朝鮮의 政情은 눈을 뜬 사람들의 생각을 두 갈래 分立시켰었다.

2. 徐載弼과 俞吉濬——19世紀 末葉에 있어 朝鮮을 開化시킬라는데 있어 西洋의 近代的인 思想을 受容 實踐하는데 있어 代表的 두 사람을 通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徐載弼——金玉均이 日本遊學生을 보낼 때 한 사람으로 日本에 가서 軍隊訓練을 받고 돌아와 1884年(甲申) 政變때 開化派의 一員으로 海外에 逃避, 美國留學을 하게된 徐載弼은 1896年에 歸國하여 美國에서 보고 理解한 西歐의 民權思想을 通하여 朝鮮사람을 啓蒙하기에 힘썼다. 卽 獨立協會를 通하여 「독립신문」을 通하여 물론 自覺한 人士들이 共通되게 지니고 있었던 생각이지만 한자리에서 指導的인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2) 俞吉濬——1881年 日本 東京에서 福澤諭吉에게서 薰陶를 받았고, 이어 美國—유럽의 近代的 樣相을 보고 돌아온 俞吉濬은 甲申政變後 執權한 親淸의 人 守舊派에 몰려 幽閉되었었다. 그는 이 幽閉中 日本—美國—유럽의 見聞을 主로 日本人 文獻에 依據하여 整理하였다. 그것이 「西遊見聞」이다. 이 책은 朝鮮사람이 西歐近代社會의 樣相을 綜合的으로 體系있게 紹介한 唯一한 文獻이